

# 양자·3자·다자... 어떤 대결이든 정권교체 대의 쫓는다

## 호남민심 어디로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호남 민심'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이 전체 판을 흔들 수 있는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에 국한했던 호남의 전략적 가치가 급등한 것이다. 이는 제1야당의 정치적 뒷받침에서 벗어나 제3당을 만들어 낸 호남 민심의 유동성에 기인하고 있다. 일단, 올해 추석 연휴에는 전반적인 호남 민심의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기 보다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호남 민심의 저변에 형성된 느슨한 공감대가 연말과 연초를 거치면서 대선 정국을 뒤흔들 태풍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동성 커진 호남 민심=호남은 그동안 '야권의 심장'으로 평가받아 왔다. 야권의 대선 주자 결정과 동력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호남의 지지는 '대선 행 티켓'으로 연결됐다. 반면, 동전의 양면처럼 호남 민심의 영향력은 그만큼 야권에 국한되는 종속적 프레임에 갇혔다. 비호남 출신의 야당 일부 인사들이 대선을 앞두고 '호남 표가 어디가나'라는 말을 공공연히 할 정도였다. 대선에서 호남 표심이 어느 정도의 결정력을 보일 것인지 정도가 주목될 뿐이었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 민심이 국민의당 바람을 만들어 내면서 정치적 유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는 20대 국회를 3당 체제로 출범시킨다면 내년 대선 구도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당장, 내년 대선에 여야의 '양자대결' 구도가 아닌 '3자 및 다자 대결'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호남 후보들이 내세운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론'이 상당 부분 먹혔다는 대목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호남 민심이 제1야당 후보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에서 벗어나 호남의 가치와 미래에 부합하는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의지로 얽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하듯, 각종 여론조사에서 호남 민심은 아직까지 어느 한 당

갈라진 야권에 여권 가세...문턱 닳는 구에 행렬에 '고심'

복잡해진 대선 구도...후보 연대·단일화 요구 압박 클 듯

친박·친문 빠진 '제3지대론' 정계개편 현실화 가능성

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다. 대선 주자들에게 대한 지지율도 마찬가지다. 이는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메시지를 정치권에 던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의 구에 행렬=이러한 호남 민심의 유동성에 정치권의 구에는 분주해지고 있다. 경쟁 구도인 야권은 물론 여권까지 호남 공략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단, 야권의 잠룡들로서 호남 민심 확보는 대선행 여부를 결정짓는 첫 관문이다. '야권의 심장'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호남 민심의 지지 없이는 대선의 꿈은 사상누각이다. 이를 반영하듯,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의 호남 방문은 일삼사가 됐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김부겸 의원 등은 물론 정계복귀 초읽기에

들어난 손학규 전 고문도 호남의 중심인 광주를 방문, 대선 도전을 시사했다. 호남 민심의 유동성이 커질수록 호남으로 향하는 야권 잠룡들의 발걸음은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다.

여권도 호남을 고리로 새 판짜기에 나선 모습이다. 여기에는 보수정당 사상 최초의 호남 출신 당수 자리에 오른 이정현 대표가 선두에 서고 있다. 영남 기반인 당의 외연을 호남으로 확대해서 정권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동서화합과 국민통합이 명분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영남'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총칭', 이정현 대표의 '호남'을 묶는 시나리오다.

현실화만 된다면 여권이 불리한 대선 구도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나타났듯이 영남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데다 호남 민심이 대폭 움직일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여기에 반기문 총장의 대선 출마 여부도 미지수다. 하지만 보수정권 10년에 지친 민심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에서 호남민심을 향한 새누리당의 서진(西進) 움직임은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주목되는 정계개편=호남 민심의 유동성은 대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대선을 바라보는 호남 민심은 결국 '정권 교체'라는 대의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야권 발(發) 정계개편 가능성은 거론되고 있다. 호남이 야권의 심장이라는 점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정권교체를 위한 양자 대결 구도를 외면한다면 정치적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의 통합은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 후보단일화나 연립정부 구성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일단, 정당의 규모나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더민주에서는 대선 이전 야권 통합이나 후보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제3당인 국민의당

은 정치공학적 후보단일화는 민심에 반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후보단일화가 불가피하다면 단순 지지율보다 정권교체를 위한 확장성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도를 넘어 보수 표심까지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여기에는 야권 통합이나 후보단일화 논의에 매몰될 경우, 보수 정당한 국민의당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제3지대론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과 더민주의 패권주의에 기반한 후보를 제외한 여야의 잠룡들이 제3지대에서 모이는 '3자 대결' 시나리오다. 여기에는 새누리과 더민주에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호남 민심이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실화만 된다면 정치권은 물론 대선 판을 뒤흔들 전망이다. 핵심 주체가 없는데다 잠룡들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현실화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일부 호남 중진들을 중심으로 국민의당이 가득권을 내놓고 제3지대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난 4·13 총선을 앞둔 4월8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를 방문해 총장으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더민주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왼쪽) 지난 2월4일 국민의당이 창당된 뒤 안철수·전정배 공동대표가 광주·전남지역 현역 의원 및 당원들과 함께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 들어서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DJ·노무현 90%대 몰아 주던 호남표심 결집력 갈수록 약화...새누리 진정성 갖추면 20%대 득표할 수도

#### 몰표는 옛말

#### 헌신·비전 없인

#### 표심 결집 어렵다

내년 대선에서 호남 민심의 결집 여부도 관심사다. 지난 15대 대선에서 86.5%의 투표율에, 김대중 후보에 무려 94.4%의 표심을 몰아주며 가공할 결집력을 보여 왔던 호남 표심은 이후 결집력이 조금씩 약화되는 분위기다. 우선 호남 유권자의 투표율은 15대 대선 86%에서 16대 75%, 17대 65%로 급전 직하했고 18대 대선에서는 다시 76%로 상승했다.

야당 후보의 호남 득표율도 15대 김대중 후보 94.4%, 16대 노무현 후보 93.1%, 17대 정동영 후보 80.2%, 18대 문재인 후보 89%로 투표율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이는 강력한 호남 대선 주자가 없는데다 사회 전반의

다양성이 강화되면서 예전과 같은 가공할만한 결집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난 총선에서 호남 민심이 제3당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과연 내년 대선에서 과거와 같은 결집력을 보일 것인지는 미지수다.

야권의 단일 대오가 형성되지 않았고 3당 체제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논란 끝에 후보단일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호남 표심 결집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마련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울 실정이다.

특히, 19대 대선에 양자 대결이 아닌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면 지지 후보가 나뉘고 야권에 대한 실망감 등

이 겹치면서 호남 표심의 결집력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악의 경우 야권의 주력 후보가 호남에서 50~60% 대의 지지를 얻는데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새누리당은 서진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3자 구도가 현실화된다면 새누리당이 최소한 10% 이상, 말게는 20% 이상의 득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새누리당의 후보가 시대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고 서진 정책의 진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야권이 과거와 같은 호남 민심의 결집을 이끌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위한 헌신, 새로운 시대의 비전, 호남에 대한 진정성, 강력한 리더십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10년 보수정권의 실정과 노골화된 호남 소외 등으로 호남 민심은 과거의 강력한 결집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권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과거 13대 대선에서 김대중-김영삼 후보단일화 무산으로 정권 교체에 실패한 것처럼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HNT 하나골프

www.HanaTour.com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제 1회 하나투어 내나라 골프대회

### 대회 개요 & 시상 내역

- 대회 기간 : 2016년 9월 25일(일) ~ 26일(월)
- 대회 장소 : 엘리시안 CC 18H + 레이크 힐스 18H
- 시상 내역
  - 우승(신페리오) : 제주도 2인 골프 상품권 (2인 항공권, 엘리시안 그린피, 골프텔 숙박권)
  - 메달리스트 : 주중 명문골프장 4인 라운드 이용권 (그린피&카트피)
  - 홀인원 : 레이크 힐스 CC 4인 라운드 이용권
  - 롱기스트/니어리스트 (남,여 별도) : 호텔 숙박권 1박/1인 기준

### 제주 아마추어 골프대회

총상품가 459,000원 1인 (4인 1팀 구성)

- 포함사항 : 광주 ↔ 제주 왕복항공권, 엘리시안 골프텔 숙박 포함(40평/4인 숙박), 2일차 조식&중식
- 일 정 : 2016년 9월 25일(일) ~ 26일(월)
  - 1일차 : 레이크 힐스 CC - 18H [자유 골프]
  - 2일차 : 엘리시안 CC - 18H [대회/샷건방식]
- 참가자 혜택 : 스피스 골프공 (하프더즌) 증정

하나투어와 함께하는 제주 프리미엄 골프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가문의 |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동구 불로동 96-7) ☎ 062) 228-1199

여행의 즐거움, 면세점쇼핑 하나투어 이용시, SM면세점 최고 30%할인!

■여행상품 가격표(내선)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상품 등 반드시 고려해 부당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항공 운임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내선) 가이드(내선)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내선)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상품(내선) 개인정보(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함에 따라, 여행자 정보는 포함 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개별가입을 권장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자가 등록번호 제26004-0993-6 (종로구청) 서울시 중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지하1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금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특례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장선/불편점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